

문화도시 대구 '첫 발' 내딛다

김종렬 기자 (2009.07.29 23:38:37)



◇ 대구문화재단이 29일 대구시 중구 대봉동 문화재단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대구문화재단이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재)대구문화재단은 29일 오후 3시 대구시 중구 대봉동 문화재단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범일 대구시장, 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 이인중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최영은 대구예총 회장,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참석해 문화재단의 출범을 축하했다.

대구문화재단은 앞으로 대구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화브랜드 개발을 위해 '왈츠와 공연의 도시', '창작패션의 도시', '옛 골목의 도시', '서정시 읽는 도시', '청소년 합창의 도시' 등 10가지 문화브랜드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 194억원의 재단출연금을 재원으로 500억원 이상의 재원충당을 통해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과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 등의 목적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김순규 문화재단 대표는 “대구문화재단은 앞으로 대구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대구의 대표적 문화브랜드를 개발해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문화재단은 지난 4월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 이어 5월에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김순규(62) 대표가 취임한 뒤 공개 모집을 통해 직원 9명을 채용하는 등 조직을 갖췄다.[데일리안 대구경북=김종렬 기자]